

<이 땅의 진정한 주인> - 시 8:1-9

1. 연약한 자와 권세자

2. 하나님의 대리자

시편에는 여러 찬송시가 나오지만, 그중 오늘 본문인 시편 8편은 시편에서 가장 처음으로 등장하는 찬송시입니다. 시편에 실린 다른 찬송시는 1절을 통해 회중에게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시편 8편은 하나님을 직접 찬양하는 감탄문으로 시작함으로써 차이를 보입니다. “여호와다”라고 시인의 고백으로 시작하는 유일한 찬송시가 바로 시편 8편입니다.

시인은 ‘여호와’를 ‘우리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라는 것은 ‘주인’, ‘소유주’라는 뜻인데, 이는 왕의 호칭입니다. 따라서 시인은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주님을 부르며 시작합니다. 또한 여호와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의 위세가 온 땅에 가득 찼다는 말입니다. 이는 이 시의 중심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이들’,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린이들’, ‘젖먹이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자들을 상징합니다.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의 권세자들과 지혜자들, 다시 말해 주의 대적들을 잠잠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권력과 힘을 가졌다고 자부하는 자들이 가장 연약한 젖먹이 어린이들로 인하여 무너진다니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자기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에게 능력을 보아주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권력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손가락으로 하늘과 달과 별들을 만드신 분 아니십니까?

우리는 그에 비해 너무나도 작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사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하여 이 권한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오히려 때에 따라 자연에 의해 해를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만물의 통치 권한은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 집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를 믿어 구속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온 우주를 통치하는 왕권을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줄 요약 :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모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자!

<When보다 What> - 눅 6:1-11

1. When이 더 중요한 바리새인

2. What이 더 중요한 예수님

저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그 누구보다도 엄격한 신앙교육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주일에는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며, 주일에 행하는 소비 행위를 죄악시하시며 금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6살 때였는데, 목이 너무 말라서 어머님께 우유를 먹고 싶다고 사달라고 했더니, 주일에는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며 거절당하였습니다. 아무리 떼를 써봐도 결국 사주지 않으셨고, 그 전날 사놓은 것들이 있으니, 그것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자랐고, 점차 안식일을 이렇게 엄격하게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중심에 무엇을 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어쩌면 이와 유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었습니다. 이 이삭은 농부들이 율법에 따라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남겨놓은 곡식인 것 같습니다(레 23:22). 이런 경우 다른 사람의 밀 이삭을 자르는 것이 허용되었으므로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자른 것은 절도가 아닙니다(신 23:25).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날 제자들이 이 일을 했다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까지 비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식일에 수확하는 것, 타작하는 것, 키질하는 것과 음식을 장만하는 것 자체가 율법에 위반되는 행동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비난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리새인들에게는 무엇(what)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when)가 중요한 가치였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서는 다윗과 그의 동료들이 허기졌을 때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 아무도 먹을 수 없는 진설병 먹은 사건을 인용하며 반박하였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외에 아무도 먹을 수 없다는 진설병을 먹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는 율법을 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다윗의 행위에는 문제 삼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읽어서 알고 있는 내용을 언급하시면서 그들의 오해와 정죄를 비판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읽어도 다윗의 권위도 이해하지 못했고, 율법 규정이 인간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는 법의 정신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다윗의 사건을 언급하신 후,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 다음에 ‘하나님’이 아니라 ‘인자’를 넣어서 자신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와 대칭시킨다는 점입니다. 이는 예수가 ‘안식일의 주’이고 율법이 예수의 행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권위가 율법을 해석해야 함을 암시합니다. 안식일의 주가 인자이기 때문에 안식일의 행위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윗보다 훨씬 높은 권위를 가지신 예수께서 안식일의 주로서 제자들의 행위에 문제가 없다고 해석합니다. 제자들 역시 다윗의 일행처럼 허기진 상태였으며, 안식일에 배고픔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안식의 의미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선과 자유와 치유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기쁜 소식은 안식일에 주의 일을 하면서 배가 고프는 제자들에게 적용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나라 일꾼들이 굶으면서 고통 가운데 보내는 날이 아니며, 인간을 속박하는 날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른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것 역시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앞에 언제나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 앞에 예수님은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며 손 마른 자를 즉각적으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의사도 할 수 없는 일을 한 것이지요. 이 정도 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한 마음을 품고, 더욱 분노하여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지 서로 의논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 역시 이런 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본질적이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규례와 관행으로 인해 본질을 훼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규례와 관행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원래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줄 요약 : 안식일이 언제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지가 더 중요하다.

<실천하는 사랑> - 눅 10:25-37

1. 시험

2. 이웃 사랑 실천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영생, 곧 구원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그는 정말로 영생의 길을 묻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이

러한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시험한다’라는 용어가 사용됨으로써 율법 교사의 질문이 순수하지 않음을 암시합니다. 그는 예수님께 공개적으로 곤란한 질문을 함으로써, 예수의 낮은 수준을 드러내고 율법 전문가인 자신의 지식과 권위를 자랑하기 위하여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위선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의 물음에 답을 하지 않으시고, 율법에 대한 견해를 밝히도록 하십니다. 율법 교사는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의 대답이 옳다 하시며, 말한 대로 실천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율법 교사는 자신의 이웃이 누구인지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어려움에 부딪친 사람의 이웃이 되어야 함을 촉구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고지대의 예루살렘에서 저지대의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 길은 바위와 동굴이 많아 늘 강도들의 위험이 도사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강도떼를 만나, 옷도 벗겨지고 구타당한 뒤 버려졌습니다. 때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지만, 그는 그 사람을 피해 지나가 버렸습니다.

한 레위인도 강도 만난 사람을 목격하였지만, 그냥 지나갔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모두 이웃 사랑의 계명을 어긴 것이죠. 어떤 사마리아인이 현장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는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겨, 그의 상처를 싸매주었습니다. 그리고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봐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다음 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두 개를 주며 돌볼 것을 부탁하고, 비용이 더 들 경우 자신이 갚겠다고 약속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마치시고, 율법 교사에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율법 교사는 차마 ‘사마리아’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자비를 베푸는 자’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이와 같이 행하라고 하십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곤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왔지만, 결과적으로 자신의 무지와 위선만 드러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우리 주변에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들을 도우십시오. 그들을 돕는 것이 때로는 손해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길은 값을 치르는 길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자신을 위해 아껴 둔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상처를 싸매줄 뿐 아니라 자기 짐승에 태워 수고를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여러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 되기

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줄 요약 : 말만 하는 것은 위선적인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행하는 사랑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예수님> - 눅 19:1-10

1. 다가갈 수 없는 삭개오

2. 다가오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를 통과하고 계셨습니다. 이 여리고에는 세리장이자 부자인 삭개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당한 방식으로 세금을 걷어, 부를 쌓은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민족의 배신자였기에, 비록 돈은 많았으나 동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세리라는 직업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였던 삭개오는 키가 작았기에 더 무시당하였습니다. 이러한 불리한 조건 속에도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야겠다는 열망이 가득하였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를 간절히 보기 원했지만, 사람들은 혐오의 대상인 그에게 절대로 기를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를 보겠다는 열망을 포기하지 않았고, 재빨리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돌무화과나무는 잎이 무성하고 몸통이 굵고 가지가 옆으로 뻗어 있어 키 작은 삭개오가 몸을 숨기기에는 안성맞춤이었습니다. 그는 그 돌무화과나무 위에서 그리로 지나가는 예수를 보기 위하여 기다렸습니다.

삭개오의 이러한 마음을 아신 예수님은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예수님과 삭개오는 일면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를 아셨기에,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과 ‘해야 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며,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구원하려고 하시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십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뵈러 온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으러 오셨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돌무화과나무에서 내려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여겨지는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시자, 많은 사람이 수군거렸습니다. 수군거림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비난하는 것을 표현하는 용어입니다(5:30; 15:2). 죄인의 집에 유한다는 것은 유대 공동체의 정결과 결속력을 훼손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규범에 벗어난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비난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삭개오를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삭개오가 유

대 공동체의 규례와 규범에서 벗어나는 일을 한다는 이유로 그를 죄인으로 여긴 것이죠. 그러나 삭개오가 도덕적으로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는 이 본문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만 삭개오가 자기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만약 자신이 누군가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네 배로 갚겠다고 약속합니다.

삭개오의 이런 말은 들으신 예수님께서서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겠다”고 하신 것과 병행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머무시는 것과 구원이 그의 집에 임하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의 방문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경험하였습니다. 삭개오의 선한 행위는 구원의 방문에 대한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방문이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의 환대가 삭개오의 환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웃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기준과 생각에 예수님을 믿을 확률이 엄청 낮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시고, 그를 섬기십시오. 그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가 참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작년 특새 주제 말씀대로 은혜의 복음은 누구라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줄 요약 :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구원하시고자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을 포기하지 끝까지 복음 전하자.

<참고문헌>

1. ESV 스테디 바이블
2. 현대성서주석
3. HOW 주석
4. 엑스포지멘터리 주석
5. NICOT
6. QA시스템 성경연구
7. 라이프성경사전
8. 매일성경전집
9. 시편주석

10. 그리스도인을 위한 통독 주석 시리즈 누가복음